

오늘 마지막 장맛비... '열돔 더위' 다가온다

오후 3~6시 온열환자 최다

119 출동태세 강화



더위 잠시 잊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암교 인근 광주천 둔치의 해바라기 꽃길에서 한 가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오전까지 최고 80mm...돌풍·번개 동반 소나기도 이번 주 낮 최고 34도...일부 지역 폭염주의보, 경보로 확대

광주·전남 지역에 19일 마지막 장맛비가 내린 뒤, 한층 강한 폭염이 다가올 전망이다.

당장 이번 주 광주와 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34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35도를 넘어서는 '찜통' 더위가 예상된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나주, 곡성, 화순, 광양, 순천, 함평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주 34.1도 곡성(옥과) 32.9도, 광양 32.6도, 영광 32도, 함평 31.5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32도 안팎의 높은 기온으로 무더웠다.

기상청은 19일부터 한반도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욱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이 이날 새벽 6시에 발표한 단·중기예보에 따르면 20일 낮 최고기온은 33도, 21일부터 34도의 강한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지난 주보다 낮 최고기온이 2~3도 높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낮에는 체감 온도가 35도에 달하는 가마솥 더위와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한반도의 더위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만 쪽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경우 '열돔' 현상이 발생해 더욱 뜨거워 질 수 있다"며 "다만 6호 태풍 '인파'의 영향으로 티베트 고기압이 서쪽으로 이동한 만큼 오는 25일 이후 티베트고기압의 이동방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예보된 마지막 장맛비 또한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기상청은 장마(정제)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19일 오전(9시)까지 30~80mm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지각 장마'는 남쪽에서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돼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함에 따라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장마가 물러난 뒤, 곧바로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또다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60mm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해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이나 외출은 자제하기 바란다"며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은 삼가해야 하며,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전남(함평만, 득량만, 가막만)은 양식 생물 동태를 파악, 점검해 적극적 대응과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방청은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557대에 생리식염수와 얼음조끼·얼음팩, 전해질용액 등 폭염 대비 구급장비 9종을 비치하고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국 시도 소방본부 119상황실도 온열질환 응급의료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를 강화했다. 또 119구급차 부재 시 응급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정된 펌블런스(구급활동을 지원하는 소방펌프차) 1423대에 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소방청은 또한 지난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온열질환자 중 72.6%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다며 낮 시간대 야외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관련 출동 686건(처치환자 686명)을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3시~오후 6시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오~오후 3시 242건, 오전 9시~정오 137건 등의 순이었다. 월별로는 8월 413건, 6월 154건, 7월 96건, 9월 16건 등이었다.

최근 5년간 119구급대가 응급처치한 온열질환자는 최악의 더위가 찾아온 2018년이 2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9년 972명, 2016년 768명, 2017년 731명, 지난해 686명 등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월출산국립공원 멸종 위기 동물 잇단 포착

수달·팔색조·삿 등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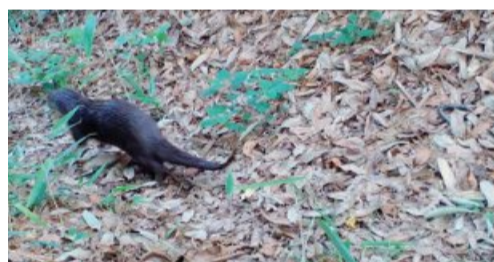
월출산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잇따라 포착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18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과 II급인 팔색조와 삿 등이 무인 관찰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새벽 월출산 사자 저수지(영암군)에서 삿이 처음으로 포착됐으며 이어 5월 29일 오전 팔색조가, 6월 2일 오전에 수달이 연이어 모습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 오소리과 족제비, 고라니 등의 포유류가 이동하는 모습도 관찰 카메라에 촬영됐다.

공단은 월출산국립공원 내 무인관찰카메라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관찰된 적은 수차례 있었으나 여러 종의 동물이 한 관찰 카메라에 연이어 포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월출산국립공원은 지난 1988년 국내 2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면적이 56.22km로 비



수달

교적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월출산에는 수달과 붉은박쥐 등 멸종위기 I급 야생생물 2종과 II급 25종 등 총 27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포착된 곳은 저수지와 숲이 인접하여 물과 먹이가 풍부해 야생동물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문광선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월출산 일대의 저수지와 습지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북구, 마을버스 2개 노선 신설...공항·송정KTX 접근성 유지

광주 북구가 '공항·송정KTX 버스 노선' <광주일보 2020년 12월 22일자 7면> 대신 마을 버스 2개 노선을 신설했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광주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북구내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최종 확정됐다.

북구는 광주 도심과 광주공항을 이어주던 공항버스 '1000번'이 적자로 인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송정KTX 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신설기로 했다.

2개 노선 중 한 노선은 대중교통이 약한 양산·건국동 일대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나머지 노선은 상무역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미흡하나마 공항과 송정KTX와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새롭게 신설되는 A노선(가칭·47개 정류소)은 시화문화마을문화관(기점) - 말바우시장 - 북부경찰서 - 양지초교 - 첨단교통공원 - 남부대학교(종점)까지 총 18.5km 구간이다.

B노선(가칭)은 살레시오교(기점) - 양산타운 - 연제주공아파트 - 운암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 시청 - 상무역 - 김대중컨벤션센터역(종점)까지 총 22km 구간이며 정류소는 45개이다.

북구는 오는 8월에는 운송사업자를 모집·선정하고, 11월까지 제반시설을 완비 후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2개 노선의 운영이 시작되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각하·두암·양산·건국동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통학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재생 에너지

건설

부동산

개발

탑인프라

문의전화 1800-6069
www.topinfra.co.kr

본 사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69(대촌동)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피러스 1201호
나주공장 |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3길 32-6(동수동)